

觀光經營學科의 특성과 운영과제

表 成 洙
(京畿大 觀光經營學科)

1. 序 論

여가 시간의 증가와 경제력 증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앞으로는 더욱 餘暇를 추구할 것이고, 여가의 한 형태인 觀光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1962년 경기여자초급대학에 관광과가 설치된 이래 관광경영학과는 양적·질적 발전을 해왔고, 지금은 20개교에 87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학과의 졸업생들이 관광산업 역군으로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도는 대학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관광학의 특성을 살펴본 후에, 관광교육의 독특성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觀光學의 特性

관광객은 원하는 경험을 획득하기 위하여 여행을 한다. 관광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원하는 經驗이 무엇이며, 그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관광 관련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을 파악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광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들 수 있다.

1) 관련 개념

관광은 여가의 일부분으로 파악된다. 餘暇는 스스로 선택하여 여가 경험을 획득하고자 행하는 의도적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여가는 마음의 상태 혹은 자유시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레크리에이션은 여가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해 주는 활동으로 여가시간에만 획득될 수 있는 경험에 관한 것이다.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를 살펴 본다면, 여가는 자유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가 경험을 할 수 있고 비교적 靜態的인 반면에, 레크리에이션은 비교적 動態的이면서도 자유시간에만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광은 거주지를 떠나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행위를 경험하는 것으로 일시적 이동을 전제로 한다(표성수, 1990: 35). 관광과 여가 또는 레크리에이션의 차이는 거주지 또는 일상생활권으로부터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2) 관광시스템, 관광학의 특성 및 접근 방법 가. 觀光學의 特性

관광학은 종합사회과학적 내지 다른 학문의 응용과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觀光學은 다른 학문, 즉 경제학·경영학·마케팅·사회학·심리학·도시계획학 외에도 여러 학문의 연구방법과 지식을 도입하여 발전하였으며, 觀光現象은 여러 기업, 즉 교통, 호텔, 식음료, 기타 여가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학문을 도입하여야 관광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의 관광 관련 기업의 운영방법 또한 파악되어야 기능적 관광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나. 觀光 시스템

관광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機能的 관광시스템의 경우를 보면 觀光現象은 ① 관광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현상이 있으며, ② 교통기관이 활성화되어야 관광객이 거주지로부터 이동할 수 있고, ③ 관광지에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있어야 관광객이 관광을 위한 이동을 하려는 욕구가 발생되며, ④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머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숙박·식음료·오락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어야 하고, ⑤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홍보 등이 중요하므로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관광시스템을 보면 관광현상은 복잡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융합으로써 일어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소들은 그 자체로 독특한 특성과 운영양식이 있고 독립된 하나의 조직 또는 개체로서 운영되지만, 상호간에 유기적 관련을 갖지 않으면 관광현상이 가능치 않게 된다. 따라서 관광학은 관광객 행동, 관광자원의 보존 및 개발, 교통·숙박·식음료·오락 등의 지원산업 계획 및 경영, 광고 및 홍보 시스템 등의 하위 시스템 각각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조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적 관광시스템은 여러 상위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들과 연계되어 운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시스템으로는 정치, 경제, 행정,

국제관계, 문화인류학적 현상, 기술 발전, 환경 등의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다. 觀光學의 接近方法

관광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된 시스템이 다양하여 논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관련된 상·하위 시스템 중 중요시되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관광학의 지식체계와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학문 분야와 연구방법이 다양하여 결국 관광학에의 접근방법은 交叉학문적·多학문적·間학문적, 그리고 汎학문적 접근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사현, 1985: 27~28).

3. 觀光經營學科 教育의 特性

관광 관련학과의 명칭을 보면 다양성을 띠는데, 관광경영학과·관광학과·관광개발학과·관광통역과·관광행정학과·관광조경학과·호텔경영학과 등이 있다. 이러한 학과 명칭의 다양성은 비록 관광경영학과·관광학과 등이 대중을 이루기는 하지만, 관광 관련학과의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광경영학과는 관광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경영기법을 중점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광학과는 사회과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개발학과는 관광지 개발 개념 및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호텔과 여행사의 통역 안내원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통역과를 들 수 있다. 관광행정 및 관광조경학과 그리고 호텔경영학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特化된 교육을 하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관광 관련학과에서는 기본적인 관광학 이론을 습득시킨 뒤에 관광 관련산업과 관련시켜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 관광산업으로는 호텔과 여행사 그리고 관광개발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다른 학문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학의 경우 관광경영·호텔경영·여행사경영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영

학 외에도 경제학·마케팅·회계학·조직행동론·사회학·심리학·인류학·조경학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더 많은 학문분야들이 관광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4. 教育課程

관광경영학과의 교육은 관광학의 기초이론을 습득시켜 관광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관광학 基礎理論은 관광조직, 관광행동에 대한 이해, 관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평가, 관광사업 및 정부의 지원, 관광자원, 개발, 홍보 및 여러 요소간의 관련 등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 관광 일반이론을 파악케 할 것이며, 어떤 관광현상에 중점을 두어 문제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보완적이면서도 시간할당 등의 문제에서는 경쟁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學問的 理論이 우선이나 아니면 산업체나 정부기관에서의 業務遂行 기능이 우선이나 하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기초적인 개론적 교과목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과목에서는 나름대로 특화하거나 세분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경우 지향점이 어디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즉, 관광 일반현상 등에 대하여 대학 과정에서 습득하여야 할 교과목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화하여 지향하여야 할 방향은 다양하다.

일반 관광이론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的 特性을 목표로 할 것인가, 중견경영인을 요구하는 호텔과 여행사 등 사기업체의 經營技法을 주 교육내용으로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방향을 상정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관광경영학과와 관광학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관광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요소들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관광현상을 파악하느냐에 따라 관광객 입장을 강조하는 觀光現象學의 이론적 접

근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공급자 측면에서 관광행위를 공급자 자신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경영학 중심의 경제·경영·마케팅 등을 강조한 經濟的 效率性 측면을 강화한 접근을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관광학 또는 관광경영학으로 나눌 수 있다. 학과의 명칭을 관광학과로 할 것인지, 관광경영학과로 할 것인지를 논란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관광객의 행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스템의 파악을 통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조정·합리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초이론을 강조하게 되면 관광학과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거시적인 관광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호텔과 여행사 등의 기업운영 측면에서 기업체의 경영 및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적 접근을 하게 되면 관광경영학적 입장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로 관광학과·관광개발학과·관광통역과·관광행정학과·관광조경학과·호텔경영학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경영학과가 주종을 이루며, 그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다.

뒤의 <표 1>은 각 관광 관련 학과의 敎科課程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교과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커리큘럼은 관광학일반, 여가사회학, 여행사, 호텔, 자원·계획·개발·정책, 연구방법, 경제, 경영, 마케팅·심리, 회계, 정보시스템, 어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마케팅, 관광법규, 관광영어와 관광일어는 모든 학교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주로 관광산업체에서 국제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적 이해를 하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관광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관광자원론, 관광개발론과 관광정책론을 들 수 있는데, 관광현상이 가능케 하는 관광자원과 이를 개발하는 과정 및 관광정책을 이해함으로써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관광 일반에 관한 과목으로는 관광학원론, 서

대분류	세부과목	동아	청주	제주	세종	계명	한양	경원	경기
경영	조직행동론 인간관계론					○ ○			○
마케팅	마케팅 관광마케팅 호텔마케팅 여행마케팅 관광소비자행동론 관광상품론 심리학 관광심리학	☆ ○	○ ○	○ ○	○ ○	○ ○	☆	○	○ ☆ ○
회계	회계원리 관광회계론 호텔회계 관광투자론	○	○	○ ○	○		○	○	
정보시스템	관광정보론 관광경영시스템론 관광정보처리시스템 관광조직론	○		☆			○ ○	○	
어학	관광영어 관광일어 관광영어원강 관광일어원강 관광중국어 국제관광통신	○ ○	○ ○	☆ ☆	○ ○	☆ ○ ○	○ ○	○ ○	○ ○ ○ ○

비스론, 국제관광론, 관광지리가 중요시되는데, 관광업의 서비스적인 측면과 관광객의 흐름 파악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여행사에서는 항공운송론이 주요 관련 과목이고, 호텔에서는 식음료 관리를 중요시한다. 관광경영학, 관광경제학, 호텔회계 등도 여러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가사회학, 연구방법, 정보시스템에 관한 부분이 많은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분야이다.

대학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관광지에 있는 대학에서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개발·경영·마케팅을 중요 학문영역으로 잡고 있고, 각 관광 관련학과가 속해 있는 단과대학별로 그 단과대학이 추구하는 분야로 이론적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경상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는 경영·관리·회계·마케팅을

위주로 하여 관광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는 주로 정보시스템과 여가문화 등을 중시하면서 관광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하나의 대학에 몇 개의 관광관련 학과를 소유하여 관광대학이라는 독립된 단과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인접학과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어학 등을 중점으로 전개해나감을 알 수 있다.

대학별 개설 교과목은 전에(조소운, 1988: 261~263; 이종문, 1989: 192~199) 비하여 학교별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적인 면은 감소한 반면, 연구방법 및 정보시스템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향하는 직업시장의 동질성, 관광 관련 학문의 발전적 체계화 및 정리의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관광 관련 여러 학과는 지역적 특성, 목표로 하는 산업, 학문적 접근방법 및 효율

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觀光教育을 할 것이냐 하는 목표의 지향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고 커리큘럼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問題點 및 代案

관광경영학과의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관광학이 많은 觀光要素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광학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전체 관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은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관광학이 綜合 사회과학 내지 응용과학으로 파악된다면 어느 정도로 타분야의 학문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타학문의 지식과 방법은 관광학에서 활용될 가치가 큰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한 구분과 관광학으로의 접목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선수과목의 적정성, 교차학문적·다학문적·간학문적 그리고 범학문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많은 실험적 경험이 판단 준거로 가미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광경영학과의 特化 정도의 문제이다. 너무 일반적인 이론교육에 치우치다 보면 현업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이 부족할 것이고, 너무 특화하다 보면 교과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력 수요가 적은 부문의 관광인력을 배출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력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 운영면에서 지나치게 특화된 형태의 과정은 피하되, 관광이론과 관광산업 분야로 나누어 호텔과 여행사 경영론 등 주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觀光市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장정보원의 파악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능

력 역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한된 교수 요원으로 모든 교과목을 소화시킬 수가 없으므로 관련학과와 공동으로 공통과목을 개설하고, 학과 중심보다는 敎科中心의 운영을 함으로써 교수 내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선택의 폭을 넓혀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으면서도 중점적인 학습이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6. 結 論

관광경영학과의 운영은 교과 특성상 어느 길이 王道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론적인 교과와 깊이 있게 한 부분만을 다룬 교과의 유사성과 중복된 내용들이 상존하고, 창의적 발전보다는 답습·정리하는 식의 연구와 개념적 논술을 주로 하는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현실에서는 創意的 敎科 編成과 運營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적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법 자체부터 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교과목의 재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내용의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김사헌,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사, 1985.
- 이종문, “대학관광교육의 교과과정과 교수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제13호), 1989, pp. 179~205.
- 조소운, “관광경영학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제12호), 1988, pp. 245~267.
- 표성수, “Leisure, Recreation, and Travel vs. Work”, 『관광연구논집』(제7집), 1990, pp. 33~46.